

37

제10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

11 A

학교	한글	성명		생년월일
	영문	한글	영문	학년
	북경대학	장몽미	Zhang Mengwei	1996년 1월 13일
	Peking University			3

나 만 의 소 도
 폭 우 날 . 한 기 대 회 현 장 에 가 는 기
 에 웬 지 긴 장 하 면 서 도 답 답 한 만 . 비 오
 는 날 이 말 밭 다 . 창 밖 에 비 게 처 엄 는
 것 는 것 기 고 있 는 차 들 을 보 니 머 릿 속
 을 막 막 함 이 흠 쓸 었 다 . 비 오 는 날 에 차
 가 막 히 는 게 더 말 밭 다 . 세 상 에 .
 배 리 속 도 온 겨 띄 어 가 고 삶 은 데
 그 만 큼 힘 이 었 는 듯 이 큰 빗 속 에 끝 이 없
 이 띄 고 있 던 내 가 생 각 났 다 .
 6 년 전 . 중 학 교 3 학 년 학 생 이 되 어
 고 등 학 교 입 학 시 험 을 준비 하 기 시 작
 했 던 시 절 . 학 교 공 부 는 장 하 면 서 반 장
 을 맡 은 나 는 스포 츠 대 회 에 서 도 상 을
 타 곤 해 서 반 천 구 들 이 나 선 생 님 들 의
 눈 에 아 구 옥 수 한 학 생 역 판 것 같 았 다 .
 고 등 학 교 입 시 에 체 육 도 필 수 과 목 으 로
 들 어 가 있 어 서 나 는 무 척 기 뻗 었 다 . 체 육
 시 험 은 볼 격 적 입 시 보 다 한 달 더 인
 건 뵈 야 돼 서 좋 은 체 육 성 적 을 얻 을
 수 있 다 면 남 들 보 다 좋 은 고 등 학 교 와 의
 거 리 가 이 비 가 까 워 진 것 같 다 . 그 때 서
 모 든 학 생 들 은 교 실 에 서 막 찬 같 이 공 부
 했 을 뻔 만 아 니 라 운 동 장 에 서 도 연 습 을
 마 음 이 했 다 .

제10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한글	북경대학	성명		한글	장몽위	생년월일	1996년 1월13일
	영문	Peking University			영문	Zhang Mengwei	학년	3

체육 시험도 개인적인 여는반. 체육
 선생님은 올해 접수 평가 기준을 우리
 한테 보여줬다. 우리 학교 개인 기준을 잘하느
 편이라 거점 하나도 안했던 나는 만
 점라 대조하는 시강 제한을 보니 스포
 레스도 한 활동했다. 32초. 평소예 200미터
 달리기를 연습할 때 한번이라도 32초
 만에 들어갈 거 같았다. 하느의 한 서
 리가 무너진 느낌이다.
 브라 두 달. 시간이 흘러갈수록 스포
 레스가 많아진 나는 어떻게 실력을 키
 우게고 빈하다가 며칠속에 어떤 아이더
 어가 스쳐갔다. 맞다! 무게! 짙은 시강에
 체중은 줄이기 힘들지만 몸무게 기증에
 다른 물건으로 중량을 증가시키면 달리
 기할 때 무조건 효과가 있다고 확신했
 다. 이어서 인터 넷 쇼핑으로 사온 물러
 패스를 바깥쪽에 각각 1kg 무게다 냈다.
 평일에 저녁먹고 한 2시간 정도는
 운동장에서 보낸느 시간이었다. 항상 바
 랐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 무게운 모래 패
 스 무게를 달리기 연습을 계속했다. 사
 위 시강 바깥쪽에 무게 패스를 바느
 에 무게를 정도로 나는 모래 패스를 끼고
 서있다. 무려 2시간 걸쳐엄 모래

제10회 전국 성균관 백일장

학년	학명	성년월일	1996년 1월 13일
	과목		
	Peking University	Zhang Mengwei	3

팩은 내게 반점을 가져온 수 있는 행
 운 물건인가? 생각의 틀이다.
 그러던 어느 날 행운을 상징하는 모래
 패는 나를 다치게 만들었다. 빛속으로
 한 바퀴, 두 바퀴 띄우고 먼 나날 겨
 족 넘어졌다. 먼저 는 것 은 아픔이
 아니라 눈물이었다. 포기할 줄 모르는
 나는 희한하게 웃음이 터졌다.
 변미하다. 속도가 오히려 느려졌다. 물
 라가지 마세요는데 느려졌다. 의도석에서
 상상처를 처리하느라 동시에 나는 이 생각
 밖에 안 들린다. 태양과 눈물이 얼굴에
 흔해 해와 맞닿다. 아픔을 못 참는 것이
 아니라 자존심이 배반하기에 편여전되기
 때문에 있다.
 타리를 다쳤으니 집에만 있기 때문이다
 코가 땀을 흘려진 나는 그 때까지도 독도의
 문제제기에 대해 고민했다.
 "왜, 밥 먹자!" 엄마는 내 방으로 들어
 왔다.
 "이 맛 별로 먹었는데... 좋은 이따."
 엄마는 내 옆에 앉아서 둘러싸고 "왜, 고
 새 했다. 엄마는 다 먹고 있어. 우리 태
 이 건강하게 힘들 거야."
 "엄마" "엄마" 딸은 두서너번 누워 가

제10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급	한글	북경대학	성명	한글	장웅위	생년월일	1996년 1월 13일
	영문	Peking University		영문	Zhang Xiongwei		
							학년
							3

100

자기 뜬 거 꺾었다. 우 커 소리 내 면서
 엄마 품 에 등 어 났 다. "엄마 ... 나 왜 못 해?"
 여 십 이 연 습 했 는 데 왜 못 해? 그 령 게 노
 려 했 는 데 , 그 령 게 힘 들 어 는 데 속 도 가 만
 을 라 가 . 진 짜 나 어 땡 게 해 야 돼 . 힘 들
 어 죽 겠 다 ... "

200

엄마 는 등 으 면서 평 평 우 는 나 의 등
 을 쓰 다 들 으 며 만 했 다 , "다 . 못 한 거 아
 니 다. 진 짜 . 바 뭉 법 이 갇 못 된 것 뽕 이 지.
 뽕 뽕 32 초 만 생 각 하 며 서 딱 면 엇 마 나
 뽕 뽕 스 러 켜 뽕 나 ? 그 처 ? 속 직 히 속 도 가 는
 린 게 아 니 라 네 속 도 가 너 무 빠 른
 거 야 . 뽕 뽕 인 지 "

300

"네 속 도 가 빠 른 거 니 ?"
 "그 때 . 너 무 라 해 . 엄 마 로 선 네 가 때 인
 목 거 운 모 래 뽕 은 뽕 고 다 니 는 것 같 번
 니 경 만 바 음 이 아 또 더 라 . 뽕 아 , 네 가
 갇 하 는 한 생 이 야 . 사 람 들 다 앞 아 . 그 때
 과 유 볼 중 이 다. 너 무 라 하 면 거 의 다 다
 가 운 것 도 쉽 게 인 게 된 다 는 거 야 . 우

500

리 때 뽕 미 령 게 뽕 뽕 한 아이 민 데 이 해 한
 수 있 겠 지 ? ... "
 라 유 볼 중 . 이 런 미 처 는 앞 면서 도 자 신
 을 미 령 지 경 은 로 만 들 것 네 . 너 무 는 린
 게 아 니 라 라 속 이 다 난 . 자 신 의 한 게 가

제10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한글	성명	한글	생년월일	학년
	영문		영문		
	Zhang Mengwei Peking University		Zhang Mengwei	1996년 1월 3일	3

잊음에 두 분 구하고 빠리 더 빠리 띄고
 싶은 마음 멎었다. 머리 석은 내가. 갓
 저히 원한 수 놓 너 옥 띄어 지게 되 수 방
 에 먼 장아.

체곡 시험 남. 내 차례 다 드디어. 신
 반광을 다시 꿈을 이 못하고 한숨을 쉬었
 다. '나만의 속도, 나만의 페이스를 지키
 면 된다.' 이렇게 생각하며 영어 문제에
 소가 되었다. 그새, 속도를 잼아 다니는
 것보다 나만의 속도대로 뛰는 게 더 중
 요하다.

"준비!"
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표만 지켜왔
 다. 심장이 벌렁벌렁 두근거려 뛰어나

"바!"
 종소리를 듣자마자 남기 시작했다. 이
 령계가 벼은 느낌이 처음이었네.

이 것이구나. 나만의 속도.